

예술과 스타일



홍경안 의
시시일과

학생 또는 이제 갓 미술계에 발을 들인 젊은 작가들과 작품 관련 대화 시 곤잘 접하는 질문들이 있다. 자신만의 표현방식 혹은 독자적인 길에 관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는 일정하고 통일된 독자적 양식, 즉 스타일에 대한 부분도 있다.

최근 모 대학 강의에서도 그랬다. “누군가에게 작품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과거와 현재의 작업이 너무 다르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고 운을 뗐던 학생은 “동일한 작가의 작품으로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곧 나만의 스타일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필자의 입장에서 위낙 자주 듣는 물음이라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현재로서는 특유의 예술적 방식이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극히 합당한 시간을 지나고 있으니 염려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문제처럼 비취지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타일과 관련해 영국 작가 이언 잭맨은 그의 저서 ‘아티스트를 위한 멘토링’에서 유아트의 대가인 브리짓 라일리의

발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썼다. “예술가의 초기작은 여러 가지 경향과 관심의 혼합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중 어떤 것들은 양립 가능하지만 어떤 것들은 상충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길을 고르고, 그러면서 어떤 것은 거부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면, 특정한 탐구패턴이 나타난다. 한 가지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다른 하나를 맞게 된다. 당시에는 그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스타일은 예술을 융합시키는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유무형의 결정체다. 다양한 조형요소와 원리를 비롯해 드러나지 않는 맥락과 질서를 담아낸 결과이자 가시적 표상체계의 완성이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며 일구진다.

하지만 현장에 있다 보면 엇그저 졸업한 신진 작가들조차 내용과 형식의 특성에 조급해하고, 그런 그들에게 스타일이 없다면서 나무라는 이들을 어렵잖게 만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예는 예술초년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스타일이란 넓고 깊은 경험을 토대로 한 미학적 탐구의 결과이기에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피카소의 드로잉을 보고 예술가로서 자신이

발전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다고 피력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오히려 처음 예술계에 발을 들인 작가들의 작품은 옛 선배들의 작품과 동시대미술흐름의 복합체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

브리짓 라일리의 말처럼 젊은 작가들은 아직 명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이것저것 실험적인 과정을 거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며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게 정상인 셈이다.

이는 모네와 피사로, 드가로부터 색과 붓놀림을 빌려와 독자적인 양식을 만든 마네나, 피렌체 메디치도서관 벽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벽화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시인한 마크 로스코, 1913년 아모리소에서 발견한 야수파와 인상파, 큐비즘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전혀 다른 예술관을 갖게 된 미국 추상화가 스튜어트 데이비스 등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젊은 작가들에게서도 소위 스타일이란 것을 엿볼 수 있다. 일찌감치 자기만의 특성을 선보이는 작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허나 그들에게서 읽히는 스타일이란 대체로 취향의 보편성에 기댄 여운이 있다. 그건 젊어서 알게 되지만 경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과는 결이 다르다.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현대차,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념 특별전시회
현대자동차는 7월 20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념 특별 전시회 개막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필립 르플록 FIFA 상업 부문 최고책임자,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조직위원회 회장, 파트마 사무라 FIFA 사무총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마르코 파조네 FIFA 세계 축구 박물관 총괄 디렉터, 호베르투 카를로스 FIFA 홍보대사(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NH농협은행 감사부, 깨끗한 농촌마을 가꾸기 동참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감사부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를 방문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운동에 동참하고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채운 감사부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감사부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메밀씨 뿌리기, 참깨이식 작업을 함께했다. /NH농협은행

고령 가입자 외면하는 보험업계



기지수첩
이봉준
(파이낸스&마켓부)

최근 보험사들이 카카오페이 등과 손잡고 보험료 납부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미래의 주요 소비층인 2030세대 젊은층을 공략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인슈어테크 활성화 등 각종 신기술로 보험사 서비스를 개편,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보험료 납부는 물론 보험금 청구 절차도 보다 간편해지는 추세다.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하여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도 기대하고 있다. 그간에는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 청구서 등 각종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야 했지만 모바일 등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로 소비자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다만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60세 이상 고령 가입자에게는 같은 서비스는 ‘하늘의 별따기’일 뿐이다. 고령 가입자들은 적어도 20~30년 전 상품에 가입하여 전국에 설치된 고객센터를 이용,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기술 진보를 통한 모바일 활용보다 직접 고객센터를 찾아 업무를 보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이다. 보험사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이들 고령 가입자에 대한 보험계약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객방문센터 또는 지점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각 사는 고객방문센터 통폐합 및 점포 축소를 단행해왔다. 지난 한 해에 문을 닫았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은 오롯이 고령의 보험 가입자, 기존 보험사서비스가 편리한 이들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고령 가입자의 불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전체 금융 서비스 중 보험 소비자의 불만율이 높고 금융감독원 보험 소비자 민원율이 쉽게 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계약관리 서비스 및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의 불만사항 해소가 제대로 맡겨지지 않은 탓이다.

보험사들은 기술 고도화와 소비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서비스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령 가입자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급진적인 서비스 발전보다 전체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 만족을 이루어야 한다. 고령의 보험 가입자들은 과거 대한민국 산업의 부흥기 노동 현장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다. 이들이 보험계약을 하고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오늘날 보험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고객서비스 실현이 달성된다.

/bj35sea@metroseoul.co.kr



한화생명·손보 임직원 및 자녀, 해양환경 정화활동
한화생명과 한화손보는 지난 9일 강화도 여자리에서 해양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한화생명 임직원 및 자녀 40명이 함께 했다. 봉사단은 인근 갯벌에 버려진 페트병, 페스티로폼, 페비닐 등을 수거했다. 부모와 자녀가 2인 1조로 약 2시간 동안 해안가 3km 구간에서 20포대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참가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서울우유, 배우 윤여정·손호준 홍보대사로 위촉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배우 윤여정과 손호준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우유협동조합 본사에서 진행된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송용현 조합장, 최철수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배우 윤여정(왼쪽부터), 송용현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손호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인사

◆한국스포츠경제 △대표이사 발행인 송진현 △부사장 겸 편집대표 명재곤 △전문이사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 5월 28일 제 39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067호

편집국장 문주용

부음

▲ 오충근 씨 별세, 오종훈(SK에너지 에너지 전략본부장)·송훈(개인사업) 씨 부친상 = 9일,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2일 오전 8시. 053-620-4647

▲ 정재화(전 경일여고 교감)씨 별세, 최명희(전 대구초등학교 교장)씨 남편상, 정진영(국민일보 종교국장)씨 부친상, 황남경(더힘찬약국약사)씨 시부상, 정치화(현대리마트 디자이니)씨 조부상 = 발인 12일 오전 9시, 대구 한패밀리요양병원 장례식장. 053-760-8800

금감원

금융교육강사 연수자 모집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하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연수대상은 금융유관기관·금융회사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교사 경력 10년 이상 등의 경력자 중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아디다스, 국립현대미술관과 ‘MMCA 무브X아디다스’ 진행
아디다스가 국립현대미술관(MMCA)과 함께 지난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스포츠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관객 참여형 ‘MMCA 무브 X 아디다스’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무용수 성장용, 김민진이 사전 응모를 통해 선정된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현대무용과 트레이닝이 접목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아디다스